

KIA 4번타자 나지완이나 최희섭이나

나지완, 재활캠프 체력훈련 통과 日 오키나와 합류

15일부터 11차례 연습경기...타선 퍼즐맞추기 시작

KIA 타이거즈의 '4번 타자' 나지완이 워밍업을 끝내고 일본 오키나와에 입성했다. '호랑이 군단'의 타선 퍼즐이 맞춰진다.

김 재활캠프에서 훈련을 해왔던 외야수 나지완이 3일 오키나와로 자리를 옮겼다.

나지완은 지난 가을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착실하게 재활을 하면서 우려했던 체력테스트까지 깔끔하게 소화한 나지완은 군복무라는 짐까지 덜어내면서 이번 겨울에도 스프링 캠프의 짐을 썼다.

예초 나지완의 목표지는 오키나와였다. 하지만 캠프 출발 며칠을 앞두고 나지완은 짐을 다시 썼다. 오키나와 대신 캠프에서 워밍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따뜻한 재활 캠프에서 완벽하게 몸을 준비하고 차분하게 시즌을 출발하라는, '4번 타자'에 대한 나름의 배려였다.

나지완은 광으로 가 마운드 복귀를 노리는 각별한 후배 한기주 등과 2015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무더운 날씨 속 나흘로 타자로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느라 고생도 했지만 그라운드에서 오를 준비를 끝내면서 예상보다 빨리 또 가장 먼저 캠프에서 오키나와 캠프로 이동하게 됐다.

본진 합류로 나지완과 KIA의 2015시즌 준비에도 속도가 붙는다.

지난달 16일 시작된 오키나와 캠프는 중반을 넘어 실전 모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3일 턴으로 전개됐던 캠프는 9일 휴식일을 끝으로 4일턴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15일부터는 야쿠르트전을 시작으로 11차례의 연습경기가 선수들을 기다린다.

앞서 세 명의 선수가 캠프에서 중도 이탈을 하는 등 오키나와에서는 전력의 큰 틀을 다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습경기가 시작되면 세부적인 전력이 그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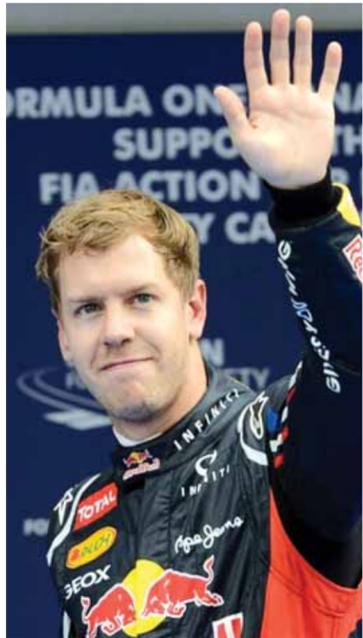


나지완

이번 캠프에서는 '4번 타자' 자리도 관심사다. 최희섭이 종적을 감춘 사이 나지완은 팀을 대표하는 4번 타자로 자리를 굳혔다. 하지만 최희섭이 달린 모습으로 방향을 다시 틀면서 중심 타선의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 자리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나지완의 본진 합류로 올 시즌 가용될 타자 자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상대적으로 허약한 마운드의 힘을 채워줄 타선의 퍼즐 맞추기가 오키나와 캠프의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페텔, 부활?

지난해 1위 기록 없이 5위로 추락

F1 연습주행 1분20초984 1위

다음달 13~15일 호주서 개막전

'옛 황제' 제바스티안 페텔(독일·28)이 새 팀에서 권토중래를 노린다.

3일(한국시간) AP통신은 페텔이 스페인 카디스 인근의 헤레스 서킷에서 열린 포뮬러원(F1) 프리시즌 연습 주행에서 랩타임 1분20초984로 가장 빨리 달렸다고 전했다.

헤레스 서킷에서 열린 공식대회에서 나온 가장 빠른 랩타임은 하인츠 하르트 프렌켈(독일)이 1997년 기록한 1분23초135다.

정규시즌 성적과 관계없이 컨디션과 차량 점검 등을 위해 이뤄지는 주행이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지난 시즌 페텔이 남긴 처참한 성적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페텔은 2013년 F1 그랑프리에서 19번 중 무려 13번 정상을 휩쓸며 마하엘 슈마허(독일)가 가진 한 시즌 최다승 기록(13승·2004년)과 동률을 이루며 2010년 이래 4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특히 11라운드 벨기에 그랑프리부터 최종전 브라질 그랑프리까지 9회 연속 1위를 차지, 알베르토 아스카리(이탈리아)가 1952년부터 1953년까지 두 시즌에 걸쳐 세운 최다 연속 기록(9연승)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만약 2014년 개막전이었던 호주 그랑프리에서 1위로 들어오면 F1 사상 최초의 10연승까지 이를 수 있었다.

절정의 영광이 눈앞에 있던 순간, 페텔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개막전에서 엔진 이상으로 다섯 바퀴만 돌고 기권해야 했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결과는 신통찮았고, 결국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1위에 오르지 못한 채 최종 5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2014년을 마감해야 했다.

기준에 쓰던 8기통 2.4ℓ 자연흡기 엔진 대신 6기통 1.6ℓ 터보엔진을 도입한 F1 규정 변경의 여파, 차량의 잦은 고장, 메르세데스의 초강세 등이 어우러지면서 페텔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왕위를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영국)에게 내주고 말았다.

절치부심한 페텔은 4연패의 영광을 함께했던 레드불과 결별하고 올 시즌부터 페라리에 합류했다.

페텔은 "지난해 페라리를 몰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 동안 생소한 버튼과 스위치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페라리 차량의 최대치를 뽑아내겠다"며 "여전히 기준은 메르세데스다. 메르세데스는 지난 시즌 다른 모든 팀을 장백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왕좌 탈환과 설욕 의지를 내비쳤다.

올 시즌 F1 개막전은 내달 13~15일 호주 멜버른 앨버트파크 서킷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야구선수 부상·체력관리의 모든 것

KBO, 트레이닝 지침서 펴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트레이닝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상예방과 체력관리를 위한 야구 선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KBO 육성위원회 환경진 명예위원의 재활 훈련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한 나주 동신대학교 임승길 교수의 학문적 이론이 담겨있다.

또 야구 경기나 훈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상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방법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실어 어려운 의학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된



리틀 및 초·중·고교 유소년 야구팀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여자 야구, 상무, 경찰야구단에 배포해 건강한 선수 육성과 지병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BO는 또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초·중·고급 단계별 영상물 제작 등의 기술적 지원, 마인드 컨트롤을 돕기 위한 멘탈 지침서 발간, 해외서적 번역 및 보급 등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유소년 야구 선수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대학생 객원마케터 모집

KIA 타이거즈가 제 11 대학생 객원 마케터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KIA를 사랑하고 홈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호남지역 대학생이며, 오는 13일까지 이메일(lovekiatigers@daum.net)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KIA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객원 마케터는 홈경기 현장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실무를 익히고, 구단 마케팅 분야별 각종 아이디어 제안 등 제시된 과제를 제출하게 된다.

객원 마케터에게는 전국 구장을 출입할 수 있는 ID 카드 및 유니폼(상의)과 모자가 지급된다. /김여울기자 wool@

1위 굳히기

VS

자존심 회복

리디아 고



세계랭킹 1·2위 0.03점차...5일부터 LPGA 바하마클래식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로서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해 자리 굳히기에 나선다.

근소한 차이로 정상의 자리를 빼앗긴 2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도 같은 대회에 참가해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리디아 고와 박인비는 오는 5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바하마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오션클럽 골프장(파73·6644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맞붙는다.

리디아 고는 지난주 LPGA 투어 2015시즌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최연소 세계랭킹 1위에 등극했다. 리디아 고는 이 대회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다 4라운드 17번홀에서 실수해 시즌 첫 승은 아깝게 놓쳤다. 하지만 생애 첫 세계랭킹 1위 타이틀을 따내는 데는 성공했다. 종전 랭킹 1위인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공동 13위로 주춤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

순위 변동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랭킹 포인트는 리디아 고 9.70점, 박인비 9.67점으로 점수 차이가 0.03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회 결과에 따라 리디아 고와 박인비의 희비가 다시 교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랭킹을 부여받을 때는 최근 13주 이내에 열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록 유리하다.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은 지난해 리디아 고가 프로 전향 후 처음 출전한 LPGA 투어 대회다. 당시 리디아 고는 공동 7위를 기록해 데뷔 전으로는 성공적인 성적을 냈다.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 대회에서 박인비가 우승하면 LPGA 투어 개인통산 13승째를 달성하게 된다. 리디아 고는 6승에 도전한다.

코츠 챔피언십에서 리디아 고를 제치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새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한 최나연(28·SK텔레콤)도 기세 몰이에 나선다. 최나연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4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출발했다가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쳐 아쉬움을 삼켰다.

'디펜딩 챔피언' 제시가 코르다(미국)는 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2013년 우승자인 이일희(27·불빅)는 2년 만의 우승컵 탈환을 기대한다.

이 밖에도 LPGA 투어 루기인 백규정(20·CJ오쇼핑)과 김세영(22·미래에셋)을 비롯해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박희영(27·하나금융그룹) 등 LPGA 투어 한류 주역과 세계랭킹 3위 스타이시 루이스(미국), 제미코포 미셸 위 등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박인비

